

# “자치경찰 생활안전·범죄예방 최우선”

### 전남도, 온라인 설문조사 향후 3년간 많은 투자 필요 ‘학교폭력’ 근절대책 시급

전남도민 2명 중 1명은 향후 3년간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사무로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꼽았다. 또 시급하게 근절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

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2주간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자치경찰 3대 사무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별로 도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도민 2,30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자치경찰 3대 사무 중 우선

추진 사무를 묻는 질문에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이 1,178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793명(34.4%), ‘교통안전 활동’ 334명(14.5%) 순이었다. 도민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로는 ‘주거지역’ 646명(28%), ‘유형·변화가’ 588명(25.5%)이었다. 지역별로 농촌지역은 주거지역을, 도시중심지역과 어촌·섬 지역은 유형·변화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 맞춤형 생활안전 치안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범죄예방 활동으로는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가 1,029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의 순찰 강화’가 595명(25.8%)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예방시설 설치의 지자체와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지자체와의 밀접한 치안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교통안전 위협 요소는 ‘이륜차 법규위반’ 909명(39.4%),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 755명(32.7%) 순으로 응답했다.

이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많아짐에 따라 이륜차 법규 위반이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801명(34.7%),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680명(29.5%)이 응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973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신속한 수사’ 976명(42.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607명(26.3%) 순으로 나타났다. 제2의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의 도민(83.1%)은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3명 중 1명꼴로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함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았다”며 “계속해서 도민과 소통해 그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길용현 기자

## 전남, ‘모두에 마을기업’ 2년 연속 배출

### 지난해 여수 송시마을 이어 올해 영광 지내들 영농조합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1년 ‘모두에 마을기업’에 영광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2년 연속 전국을 대표할 만한 마을 기업을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두에 마을기업’으로 전국 5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은 지난해 여수 송시마을에 이어 올해도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으로 지내들은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로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내들은 지난 2013년 9명의 마을

주인이 출자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를 기점으로 2014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신규지정, 2015년 재지정, 2019년 고도화를 거쳤으며, 지난해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주민 참여자가 21명으로 늘었다. 보리산업특구 지역에서 보리 계약재배 및 수매와 함께 1·2차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난해 연매출 6억2,000만 원 달성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고령농업인 40여 농가의 농산물도 수매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모두에 마을기업 선정은 전국의 간판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대상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지 만

2년 이상인 곳 중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전남도는 모두에 마을기업 공모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성장기반을 갖춘 적격기업을 발굴해 컨설팅하고, 영광 지내들이 최종 선정되도록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모두에 마을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남에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89개, 행안부형 마을기업 197개로 총 286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내들과 같은 간판 마을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동구 지산유원지 인근 COBOC카페 광장에서 열린 ‘제26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을 논의한 뒤 임택 동구청장과 모노레일을 타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지산유원지 공공주도로 개발해야”

### 광주시 ‘현장 경청의 날’ 이용섭 시장, 주민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지산유원지 일원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26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홍일·박미정 시의원, 정미용 동구의회의장 및 구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훈 시민권익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1978년 4월 개장한 지산유원지는 1970-1980년대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 등으로 사랑받던 지역 대표 관광명소다. 1994년 지산유원지 사업자 부도 이후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 관광트렌드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는 리프트 카, 모노레일 운영을 제외한 전반적인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주민 상권도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인근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산유원지의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현재 지산유원지의 개발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원지 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 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산유원지를 광주에서 직접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한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문화관광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명동, 양림동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산유원지가 다시 예전처럼 지역관광자원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확보

### 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병원선·노후 보건기관 등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서 병원선과 노후 보건기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축, 개보수

등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선정을 통해 시설 개선에 13억이 투입되는 함평군보건소의 감염병 전달시설 증축을 비롯해 22개소의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123건, 차량 33대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여수 봉두, 순천 창녕보건진료소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진도 관매도, 서거차도 보건진료소

를 개보수함으로써 열악한 섬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에게 무료 순회진료를 하는 병원선 전남511호가 노후함에 따라, 친환경 병원선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비 80억 원을 지난해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2년까지 국도비 총 127억 원을 들여 친환경병원선을 건조, 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시,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 최대 5년간 채무 분할상환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총 187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후·폐업 조서 시 폐업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보증 한도는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1년 0.5% ~ 5년 0.9%다. 브릿지 보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순환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대출 보증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증만기 연장이 안 돼 기존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브릿지 보증 시행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담

##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광주광역시동구 **창업지원센터**가

###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